

영광 테마식물원 및 승마장 발전방안 보고회 개최

꽃·말·놀이 테마로 서남권 대표 관광지 조성 주변 관광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예정

영광군은 지난 16일 흥농읍사무소에서 흥농읍 기관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영광 테마식물원 및 승마장 발전방안 보고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영광테마식물원과 승마장은 기존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 어려움이 있어 올해 12월까지 2단계 사업으로

1월 1일자로 산림공원과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영광군 흥농읍 진덕리 일원 25ha에 사업비 156억원을 투입하여 유리 온실, 테마정원, 오토캠핑장, 산책로 그리고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외승로 등을 조성했다.
올해 12월까지 2단계 사업으로

테마식물원에 산림레포츠 시설 보완과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기 위한 관리계획 결정용역 및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토대로군은 영광 테마식물원과 승마장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집객력 있는 시설 도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식물원과 승마장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어린이와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이색적인 체험놀이시설을 도입하여 영광군 대표 관광형 정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한솔페이퍼텍 이전 협상 결렬

담양군의 발전과 대규모 집단민원의 해소에 큰 이정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한솔페이퍼텍(주)의 이전을 위한 담양군과 주민, 회사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한솔페이퍼텍(주)은 대전면 주민대표, 담양군과의 한솔페이퍼텍(주) 이전을 위한 3자 협의의 과정에서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막대한 이전비용의 선보상 등을 요구하고 SRF 사용승인 불수리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과 지난 2019년 7월 29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했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서 이전의 의지가 없음을 보였다.

이에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주)이 당초 회사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행정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노를 금치 못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적연대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주민과 행정을 우롱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고 이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한솔페이퍼텍(주)의 폐쇄와 이전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지난해 초에도 한솔페이퍼텍(주) 이전을 위한 협상이 전개되었으나 협상과정에서 한솔페이퍼텍(주) 측에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함으로써 결렬되었고 이후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간접강제신청이 행정위에서 기각되자 회사 측은 태도를 바꾸어 다시 협상하고자 요구했다.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총회를 거쳐 수립된 협상안을 가지고 협상에 성실히 임해 왔지만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상상하고 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앞으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담당=박종영 기자

남도의 봄 향기 품은 '거문도해풍썩' ... 출하 시작

전국 e마트, 거문도해풍썩영농조합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

여수시는 1월 18일부터 여수 대표 특산물인 거문도 해풍썩을 전국 e마트와 메가마트, 거문도해풍썩영농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출하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격은 2kg 한 상자에 2만 4천 원이며, 생썩은 물론 썩개떡, 썩송편, 썩분말, 썩차, 썩우유 등 다양한 가공품도 판매한다.



온라인 구매는 거문도해풍썩영농조합 홈페이지(<http://www.gmdssuk.com>)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 061-644-6968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거문도해풍썩

의 친환경 생산과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생썩 적기출하 물류비, 드론 이용 친환경 방제 지원 등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지리적표시로 등록된 거문도해풍썩은 육지로부터 114km 떨어진 거문도 청정지역에서 자라 소금기마금은 해풍과 해무가 스며들어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며, 썩 향이 진하고 부드러운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생썩은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출하가 되고, 냉동썩은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가공제품은 연중 판매되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흥군 농업창업·주택구입 신청접수

고흥군은 '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 기간 내 접수를 받아 ▶ 귀농인 원 수, ▶ 교육이수실적, ▶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가능성, ▶ 영농정착 의욕, ▶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고흥군(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

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2%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용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흥군 귀농 귀촌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초기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상담·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함께 농업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문의는 고흥군 인구정책과(061-830-6849)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곡성군,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심의회

곡성군에서 지난 17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는 부군수 오승귀 위원장 주재로 8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심의안건으로는 현재 곡성군 현안사업인 신청사 건립사업을 포함한 관리계획 수립 안건 5건, 관리계획 변경안건 1건, 재산 취득 안건 1건으로 총 7건이 상정됐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과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안전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7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곡성군 재무과 이정주 과장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 군의 재정과 직결된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과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사항 등에 대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화순군, '아버지 요리교실' 수강생 모집



요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버지 요리반은 오는 29일 개강해 2월 29일까지 평일반(수요일)과 주말반(토요일) 2개 반으로 운영된다. 수강생은 1개 반당 20명을 모집하고, 5회씩 강의한다.
지역에 생산한 토마토를 이용한 수제비, 더덕 생채, 봄동 된장국 등 집에서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요리와 특별한 날 먹을 수 있는 잡채 요리 등을 배울 수 있다.

수강 신청은 화순에 사는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세한 교육 일정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 가사 문화가 확산하고 가정에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데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개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는 평등 문화 확산과 건강한 식문화 정착을 위해 화순향토음식학교가 '아버지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